

# 채만식 문학의 ‘아우라’를 ‘날 것 그대로’ 독자에게

1923년에 쓴 육필원고

83년 만에 원본사진 자료집으로 묶어내

백룡(白菱) 채만식(1902~1950년)은 장편소설 《탁류》(1937), 《태평천하》(1938)와 단편 〈레디메이드 인생〉 〈치숙〉 〈소망(少妄)〉 〈생명〉 등으로 일제 식민지 시대에 창작 활동을 했던 소설가이다. 채만식의 공식 등단작은 1924년 12월호 〈조선문단〉에 게재된 단편소설 〈세 길로〉로 알려져 있으나, 앞서 1923년에 처녀작 《과도기》를 집필했다. 이 작품은 일제시대 문학인들의 창작물 검열로 출판할 수 없었고, 83년 만에 칠필 원고를 만날 수 있게 됐다.

〈채만식 문학 원본사진자료집〉 시리즈의 기획자이자 편자인 방민호 교수(서울대 국문학, 문학평론가)는 “채만식은 한국의 근대소설가 중에서도 가장 한국적이면서 보편적인 가치를 모색한 문학인”이라고 설명하면서, “해방 이후 일제 말기의 대일협력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한 〈민족의 죄인〉과 〈낙조〉를 씀으로써 민족과 개인, 체제와 개인의 문제에 대한 깊은 천착을 보여준 작가”라고 덧붙였다.

## 친일논란 속에 나온 처녀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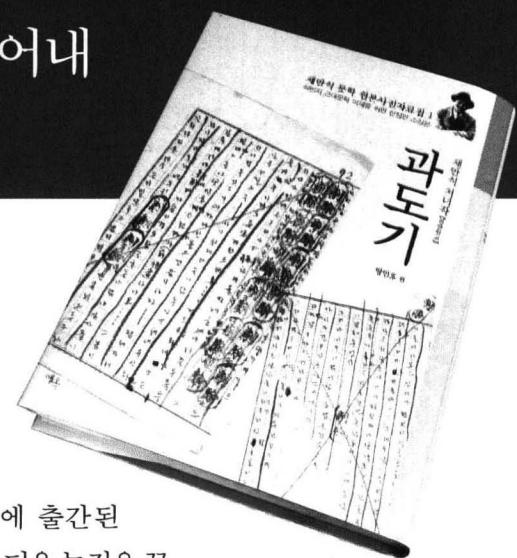
지난 10월, 채만식 문학상이 다시 부활하자 민족문제 연구소 전북지부와 광복회 전북지부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친일 청산을 위한 전북 시민연대’는 문학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군산문화원과 ‘채만식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회’는 2002년 백룡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를 기리는 문학상을 제정해 2003년과 2004년 문학상을 시상해왔으나 제3회 때인 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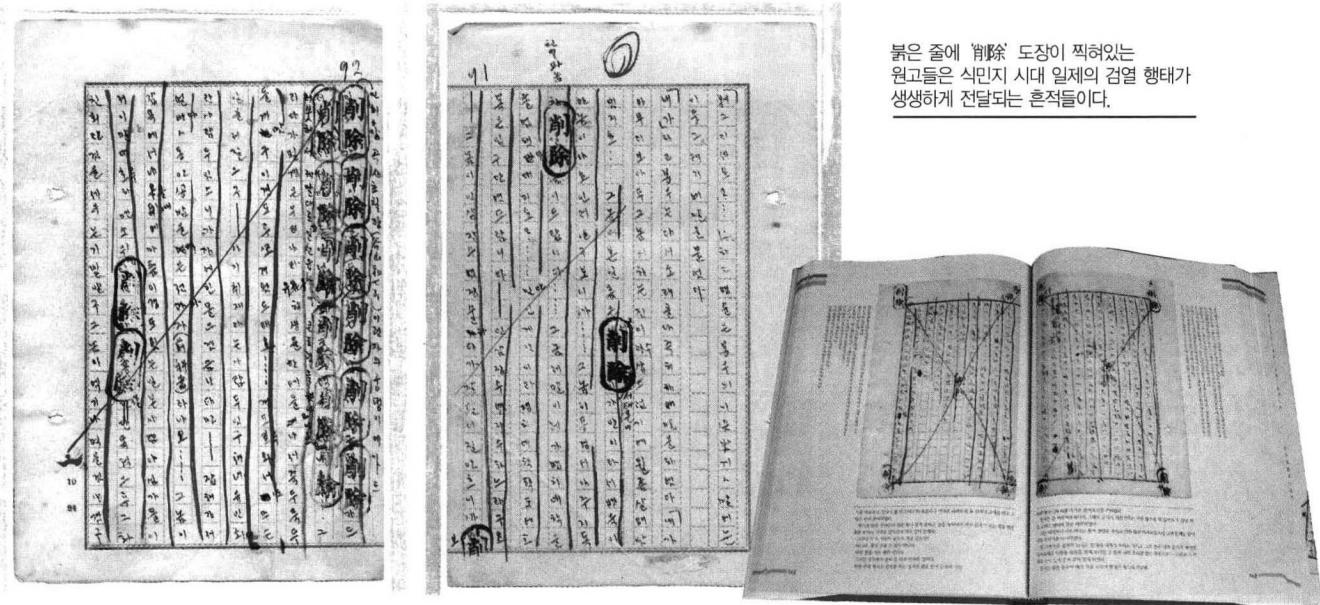
에는 거센 친일논란으로 중단하기도 했다.

이런 시점에 출간된 《과도기》에서 더욱 눈길을 끈

다. 방 교수는 “어렵게 건립된 채만식문학관이 대일협력 문제가 논의되면서 이름이 바뀌어버릴지 모른다는 소식이 들린다. 친일문학행위에 대해서 비판적 의견도 포함해 더 풍부한 문학관으로 만들고, 작가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이 더 다채롭게 담겨진 문학관으로 오히려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사논문을 준비하고 있던 방 교수는 채만식 작품을 차차히 들여다보던 중에 작품이 가진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됐다. 육필원고를 소장하고 있었던 백룡의 둘째 아들 채계열 선생을 우여곡절 찾아가 친필원고를 접하게 됐다고 한다. 처녀작 육필원고는 240자짜리 세로쓰기 원고지(10줄 24칸)로 405장이다. 오늘날 200자 원고지로 환산하면 약 500매 분량의 장편소설이다. 안타까운 것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첫 장과 결말부분의 약 10~20쪽은 유실됐다. 방 교수는 “한국 현대문학을 전공으로 삼고 있는 탓에 가끔 육필 원고를 접하지만, 《과도기》 육필원고에 필적할 만큼 중요한 원본자료를 접해 본 기억이 없다”고 소회를 밝혔다. 《행인의 독법》 《현대시 동인의 시세계》 《박인환 전집》 등을 출간한 1인 출판사 예옥 이승은 대표는 출판





붉은 줄에 '削除' 도장이 찍혀있는 원고들은 식민지 시대 일제의 검열 행태가 생생하게 전달되는 흔적들이다.

편집기획자로서 10년 넘게 외길을 걸어온 출판 전문가이다. 이 대표가 육필원고를 처음 대면했을 때 '방 교수는 왜 그토록 출간하고 싶었을까'라는 마음이 짐작됐다고. 일제시대에 활동했던 작가들의 자료들이 소실되었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보존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현실에서 과도기 육필원고는 보관상태가 매우 양호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창작의 자유를 억압당했던 일제 식민지 시대의 문학 검열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고 설명한다. 일제시대 조선에서 문학인들의 창작물 출판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하면서 검열을 가능케 한 것은 신문지법(1907)과 출판법(1909)이었다. 방 교수는 『과도기』는 혹독한 검열을 거치면서 삭제하거나 바꿔야 할 부분이 너무 많아진 나머지 출판이 포기된 듯 보인다"고 설명했다. 1987년 창비에서 출간했던 『과도기』는 채만식 문학의 향기와 당시 시대상황, 그리고 채만식의 문학 정신을 온전히 느끼기에는 불충분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간된 육필원고를 보면 작가의 고민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서체나 맞춤법을 그대로 볼 수 있어 당시의 어문 형식을 알 수 있다. 특히 붉은 줄에 '削除' 도장이 찍혀있는 원고들은 식민지 시대 일제의 검열 행태가 생생하게 전달되는 흔적들이다. 삭제 도장이 찍혀 글자를 판독할 수 없는 부분을 작가가 빈 공간에 다시 써넣은 점을 볼 때 자기 작품에 대한 엄격한 의식을 엿볼 수 있다. 또한 검열로 인한 삭제를 인정하지 않겠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일제 검열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작가의 의지가 엿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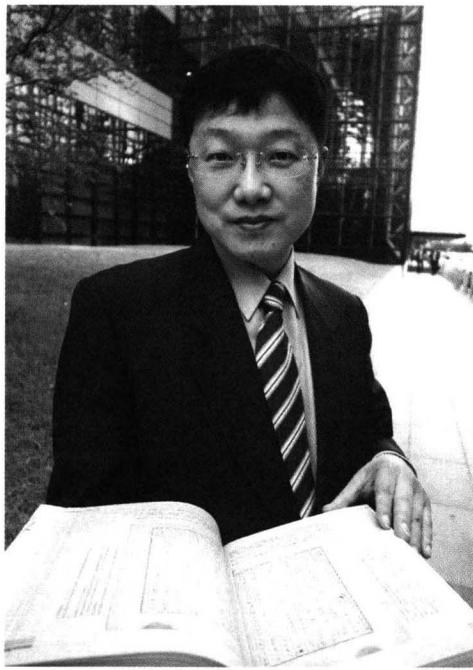
### 한정판 소장본으로 제작, 고유번호 매겨

유족이 소장하고 있는 채만식 육필원고는 원고지로 약 3천매 분량이다. 이 대표는 〈채만식 문학 원본사진자료집〉시리즈를 세 권으로 나누어 제작하기로 결정했다. 1인 출판사로서 감당해야 할 비용과 만만치 않은 품이 들어가는 작업을 고사할 법도 한데, 이 대표는 이 일은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여겼다.

"이미 기업화된 출판사에서는 굴러가는 흐름 때문에 이런 용기를 내는 게 오히려 어려울 수 있지만, 저는 더 이상 앓은 게 없거든요.(웃음) 오히려 배짱이 더 두둑해졌다고 생각해요."

다행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예술보존 조사사업으로 『과도기』 출간 비용을 일부 지원해줬다.

유족들이 외부로 원고 반출을 못하게 해서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채계열 선생 집에서 작업을 했다. 육필원고를 디지털카메라로 찍고 스캐너로 한 장 한 장 원형을 떴다. 편집과정 중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은 원문을 그대로 살리는 것과 교정 작업이었다. 즉 원본 텍스트와 입력 텍스트(맞춤법과 띄어쓰기는 물론 오자까지 원본 그대로) 그리고 현대역의 교정 작업은 매우 세심한 작업을 요구했다. 육필원고 그대로 한글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과정



채만식을 연구해오면서 인연의 힘을 느낀다는 문학평론가 방민호 교수.

에서 프로그램에 입력되지 않는 글자는 일러스트로 글자를 만들어 앉혔다. 현대역은 박미연(실천문학

는 도쿄역 플랫폼에서 배웅 나온 일본인 애인 영자를 만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다.

근대문학사에서 일본여성과의 연애를 그린 작품은 많지 않다. 채만식의 『과도기』 『냉동어』, 염상섭의 『만세전』 정도이다.

방 교수는 “민족이 다르고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민족의 여성과 연애를 한다는 점은 연애가 담고 있는 합의가 다르다”고 설명한다. 그 관계는 ‘민족문제’가 담겨 있다는 것. 표면적으로는 결혼했기 때문에 다른 이성과는 연애할 수 없다는 것이지만, 이면에는 이민족 간의 사랑과 결혼이 가능한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이 내포돼 있다. 방 교수

는 『과도기』를 통해 채만식이 살다 간 시대를 이해하고 채만식 문학에 대한 이항대립적 논리를 떠나 채만식 문학을 깊이 있게 이해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

아버지의 육필원고를 보관해 온 둘째 아들 채계열 선생은 안타깝게도 지

10년 넘게 출판편집자로서 외길을 걸어 온 1인 출판사 ‘예속’ 이승우 대표



편집국장 아내)씨가 했다. 박미연씨는 전라도 방언에 친숙하고 채만식 작품세계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다.

위낙 세월이 오래돼 원고지에 난 얼룩 등 종이의 색깔 농도들이 달랐다. 편집과정에서 세월이 남긴 얼룩들은 그대로 남기되 일률적으로 원고지 색깔 톤을 맞추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1년 여의 작업과정을 거쳐 〈채만식 문학 원본사진자료집〉 시리즈(전 3권)의 첫 번째 작품인 『과도기』가 500부 한정판 소장본으로 제작됐으며 책마다 고유 번호가 매겨 있다.

### 이항대립적 논리를 떠나 채만식 문학을 깊이 이해해야

제목 ‘과도기’는 원고를 집필할 당시의 유행어였다고 한다. 내용 중 ‘과도기의 특산물 부스러기’라는 대사는 과도기라는 제목이 상징하는 주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작가는 당대 사회를 과도기로 보고 선진문화를 흡수한 젊은층이 겪는 의식의 균열과 그로 인해 부정적인 일탈행위로 나아가게 되는 과정을 소설로 표현한 것이다.

1923년이라는 해는 일본에서 유학중이던 채만식이 여름방학 중에 집으로 돌아온 시기다. 가세는 기울어 있고, 9월 18에 관동대지진까지 일어나 시국이 어수선해져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관동대지진 이후에 채만식이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심리적인 처지를 소설 속에서 읽을 수 있다”고 방 교수는 설명한다.

『과도기』 원본의 일부는 유실된 상태여서 독자들이 내용의 이해를 돋기 위해 편자의 설명이 본문의 앞과 뒤쪽에 추가됐다. 이 부분은 주인공인 정수가 일본을 떠나려

병으로 얼마 전 세상을 떠났다. 채만식을 연구해 온 학자로서 인연의 힘을 느낀다는 방 교수는 “이번 작업을 통해 얻은 가장 큰 보람은 채만식 문학의 아우라를 독자들에게 온전히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다. 내년에는 〈채만식 문학 원본사진자료집〉 시리즈의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출간될 예정이다. ■■■

취재\_정윤희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